

21. 정훈, 「탄궁가」

하늘이 만드시길 일정 고루 하련마는
어찌된 인생(人生)이 이토록 괴로운가
삼순구식(三旬九食)을 얻거나 못 얻거나
십 년에 갓 한번 쓰거나 못 쓰거나
안표누공(顔瓢屢空)인들 나같이 비었으며
원헌간난(原憲艱難)인들 나같이 심했을까

- 서사 : 궁핍한 생활에 대한 한탄

봄날이 더디 흘러 빠꾸기가 보채거늘
동편 이웃에 따비 얻고 서편 이웃에 호미 얻어
집 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올벼씨 한 말은 넘어 쥐 먹었고
기장 피 조 팔은 서너 되 심었거늘
한아한 식구(食口) 이리하여 어이 살리

- 본사1 : 농사를 짓기 힘든 집안 상황

이봐 아이들아 아무려나 힘써 일하라
죽순 물 상전 먹고 건더기 건져 종을 주니
눈 위에 바늘 짓고 코로 휘파람 분다
올벼는 한 발 뜯고 조 팔은 다 묵히니
싸리피 바랑이는 나기도 싫지 않던가
나라빛과 이자는 무엇으로 장만하며
부역과 세금은 어찌하여 차려 낼꼬
이리저리 생각해도 견딜 가능성이 전혀 없다
장초(莠草)의 무지(無知)를 부러워하나 어찌하리

- 본사2 : 종들이 무시할 정도의 가난

하늘이 만드시길 일정하게 고르게 했겠다마는
어찌된 인생이 이토록 괴로운가
삼십일에 아홉기도 먹을까 말까하고
십년에 갓 한번 쓸까말까하다
안연의 표주박이 잘 비었다 해도 나보다 비었겠으며
원헌이 가난하다 해도 나보다 심했을까

봄날이 깊어져 빠꾸기가 재촉하거늘
동쪽 이웃에게 따비를 얻고 서쪽 이웃에게 호미를 얻고
집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올벼 씨 한말은 반 넘게 쥐가 먹었고
기장, 피, 조 팔은 서너 되 부쳤거늘
춡고 배고픈 식구를 이리하여 어찌 살까

이봐 아이들아 어쩔거나 힘써 일해라
죽을 썬어 국물은 상전이 먹고 건더기 건져 종을 주니
눈살을 찌푸리며 콧방귀만 낀다
올벼는 한 발만 수확하고 조와 팔은 다 묵히니
잡초는 나기도 싫지 않던가
나라빛과 이자는 무엇으로 준비하며
부역과 세금을 어찌 차려낼까
이리저리 생각해도 견딜 가능성이 전혀 없다
잡초가 아무 걱정 모르는 것이 부러우나 어찌하리

시절이 풍년인들 지어미 배 부르며
겨울을 덥다 한들 몸을 어이 가릴고
베틀복도 쓸 데 없어 빈 벽에 걸려 있고
시루 솔도 버려두니 붉은 녹이 다 끼었다
세시(歲時) 절기 명절 제사는 무엇으로 해 올리며
친척들과 손님들은 어이하야 접대(接待)할꼬
이 얼굴 지녀 있어 어려운 일 많고 많다

- 본사3 : 명절조차 쉴 수 없는 가난

이 원수 궁귀(窮鬼)를 어이하야 여의려뇨
술에 음식 갖추고 이름 불러 전송(餞送)하여
좋은 날 좋은 때에 사방(四方)으로 가라 하니
추추분분(啾啾墳憤)하야 회를 내어 이른 말이
어려서 지금까지 희로우락(喜怒哀樂)을 너와 함께 하여
죽거나 살거나 여일 줄이 없었거늘
어디 가 뉘 말 듣고 가라 하여 이르느뇨
타이르듯 꾸짖는 듯 온 가지로 공혁(恐嚇)커틀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
무정(無情)한 세상(世上)은 다 나를 버리거늘
네 혼자 신의 있어 나를 아니 버리거든
억지로 피하여 잔피로 여일려냐
하늘이 만든 이 내 궁(窮)을 설마한들 어이하리
빈천(貧賤)도 내 분(分)이어니 설워 무엇하리

- 결사 : 가난한 삶에 대한 체념

특징 :

- ① 궁핍한 생활상을 사실적, 구체적으로 묘사함
- ② 가난함을 '궁귀'로 설정하여 대화하는 방식을 취함
- ③ 가난으로 인한 고통을 희화화함

주제 : 가난에 대한 탄식과 안빈낙도를 추구 / 궁핍한 생활로 인한 고통과 걱정

시절이 풍년인들 지어미 배부르며
겨울이 덥다 한들 몸을 어찌 가릴까
베틀의 복도 쓸데없이 빈 벽에 걸려있고
시루 솔도 버려두니 붉은 녹이 다 끼었다.
세시 절기 명절 제사는 무엇으로 해 올리며
친척들과 손님은 어떻게 대접할까
이 몰골 지니고 있어 어려운 일 많고 많다.

이 원수 이 가난 귀신을 어찌해야 이별할 것인가
술에 음식을 갖추고 이를 불러 전송하여
좋은 날 좋은 때에 사방으로 가라하니
시끄럽게 떠들며 화를 내며 하는 말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기쁨과 슬픔을 너와 함께 하여
죽거나 살거나 헤어질 줄이 없었거늘
어디가서 누구말 듣고 가라고 말하는가]
우는 듯 꾸짖는 듯 온 가지로 꾸짖거늘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리거늘
너 혼자 믿음이 있어 나를 아니 버리니
억지로 피하며 잔피로 이별하겠는가
하늘이 준 나의 가난 설마한들 어찌하리
가난도 내 분수니 서러워하여 무엇하리

22. 충담사, 「찬기파랑가」

[양주동 해독]

열치매 나토얀 두리
흰구름 조초 떠가는 안디하
새파른 나리여히
耆郎이 즈시 이슈라
일로 나릿 지벽히
郎이 디니다샤온
무스미 궁홀 좃누아져
아으 잣스가지 노파
서리 묻누올 花判이여

(구름 장막을) 열어젖히며
나타난 달이
흰 구름 따라 (서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새파란 냇물에 기랑의 모습이 있구나.
이로부터 냇가 조약돌에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따르려다.
아아, 잣나무 가지가 높아
서리를 모를 화랑의 우두머리여.

[김완진 해독]

늦겨곰 브라매
이슬 불간 두라리
흰 구름 조초 떠간 언저례
물이 가른 물서리여히
耆郎이 즈시올시 수프리야.
逸鳥나릿 지벽기
郎이여 디니더시온
무사미 古술 좃누라져
아야 자싯가지 노포
누니 모듈 두폴 곳가리여

흐느끼며 바라보매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모래 가른 물가에
기랑(耆郎)의 모습이올시 수풀이여
일오(逸鳥)내 자갈벌에서
낭(郎)이 지니시던
마음의 갓을 좃고 있노라.
아아, 잣나무 가지가 높아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깔이여.

- 주제 :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 찬양
- 특징

- ① 고도의 비유와 상징을 사용하여 대상을 세련되게 표현함.
- ② ‘사뇌가(詞腦歌)’라는 명칭이 붙어 ‘찬기파랑 사뇌가’라고도 함

23. 정도전, 「신도가」

네는 楊州(양주) | 꼬을히여
디위에 新都形勝(신도형승)이샷다.

1~2행 : 신도 형승 찬양

開國聖王(기국성왕)이 聖代(성대)를 니르어샷다
잣다운더 當今景(당금경) 잣다운더
聖壽萬年(성수만년)하샤 萬民(만민)의 咸樂(함락)이샷다

3~6행 : 태조의 성덕 찬양

아으 다롱다리

알췌 漢江水(한강슈)여 뒤흔 三角山(삼각산)이여
德重(덕등)하신 江山(강산) 즈으메 萬歲(만세)를 누리쇼셔.

7~8행 : 태조의 만수무강 기원

29. 어와 버틸시고 (정철)

어와 버힐시고 낙락장송(落落長松) 버힐시고
저근덧 두던들 동량재(棟梁材) 되리러니
어즈버 명당(明堂)이 기울거든 므서스로 바티려뇨.

옛날에는 양주 고을이여
그 경계에 새로운 도읍으로서의 지세와 풍경이 빼어나도다.

개국 성왕(이태조)께서 성스러운 왕조를 이룩하셨도다.
도성답도다! 지금의 모습이여, 도성답도다!
임금께서 만수무강하시어 온 백성들이 즐거움을 누리느구나

아으 다롱다리

앞은 한강이여, 뒤에는 삼각산이여,
많은 덕을 쌓으신 이 강산 사이에서 만세를 누리소서.

아아 베는구나 가지를 길게 늘어뜨린 소나무를 베는구나
조금만 더두었다면 팬참은 재목이 되었을텐데
아아 명당이 기울면 무엇으로 버틸 수 있겠는가

24. 송순, 「면양정가」

무등산(無等山) 한 활기 뒤흠 동(東)다히로 버더 이셔
 멀리 세쳐 와 제월봉(霽月峰)이 되어거늘
 무변대야(無邊大野)*
 의 모습 짐작 흐노라
 일곱 구비 훈디 움쳐 무득무득 버러는 듯
 가운데 구비는 굵기 든 늘근 농이
 선잠(을 곳 씨야 머리를 언쳐시니
 너르바회* 우히 송죽(松竹)을 헤혀고
 정자(亭子)를 안쳐시니 구름 탄 청학이
 천 리(千里)를 가리라 두 나리 버러는 듯
 옥천산(玉泉山) 용천산(龍泉山) 느린 물히
 정자(亭子) 압 너븐 들히 울울(兀兀)히 퍼진 드시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희지 마나
 쌍룡(雙龍)이 뒤트는 듯 긴 깃을 치פת는 듯
 어드러로 가노라 모습 일 비얏바
 닳는 듯 썩로는 듯 밤늦으로 흐르노는 듯
 묘조친 사정(沙汀)*은 눈긋치 퍼졌거든
 어즈러운 괴력기는 므스거늘 어르노라
 안즈락 누리락 모드락 훗트락
 노화(蘆花)을 사이 두고 우러곰 좃니는노
 너븐 길 밧기요 긴 하늘 아리
 두르고 꼬즌 거슨 뒤흠가 병풍(屏風)인가
 그림가 아닌가 노픈 듯 느즌 듯
 굵는 듯 닳는 듯 숨거니 뵈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즈러운* 가운데
 일흠는 양호야 하늘도 젓치 아녀*
 옷독이 섰는 거시 추월산(秋月山) 머리 짓고
 용구산(龍龜山) 몽선산(夢仙山) 불대산(佛臺山) 어등산(魚登山)
 용진산(湧珍山) 금성산(金城山)이 허공(虛空)의 버러거든
 원근(遠近) 창애(蒼崖)의 머문 짓도 하도 할샤
 흰 구름 브흰 연하(煙霞) 프로니는 산람(山嵐)*이라

무등산 한 줄기 산이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떼고 와서 제월봉이 되었거늘
 끝없이 넓은 들에 무슨 생각을 하느라
 일곱 굵이가 한데 움츠려 무더기로 벌여있는 듯하다.
 가운데 굵이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을 막 깨어 머리를 엮었으니
 넓은 바위 위에 소나무와 대나무를 헤치고
 정자를 엮혀놓으니 구름을 탄 청학이
 천리를 가려고 두 날개를 벌린 듯하다.
 옥천산과 용천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끊임없이 퍼져있으니
 넓거든 길지 말고 푸르거든 희지 말라.
 쌍룡이 뒤트는 듯, 긴 비단을 펼쳐놓은 듯하다.
 어디로 가려고, 무슨 일이 바빠서
 달려가는 듯, 따라가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한다.
 물 따라 있는 모래밭은 눈같이 퍼져있는데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려고
 앉았다가 내렸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갈대꽃을 사이에 두고 울면서 좃아다니는가
 넓은 길 밖,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꽃은 것은 산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굵기는 듯 이어지는 듯
 숨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니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 체하니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뚝 서있는 것이
 추월산 머리를 이루고
 용구산, 몽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벌려있는데
 멀고도 가까운 푸른 언덕에 머문 것도 많기도 많구나
 흰 구름과 뿌연 안개와 노을, 푸른 것은 산 아지랑이다

천암만학(千巖萬壑)을 제 집을 삼아 두고
 나명성 들명성 일히도 구는지고
 오르거니 누리거니 장공(長空)의 썬나거니
 광야(廣野)로 건너가니 프르락 불그락
 여트락 지트락 사양(斜陽)과 서거지어 세우(細雨)조초 뿌리는다
 남여(籃輿)를 비야타고 솔 아리 구븐 길노
 오며 가며 하느 적의 녹양(綠楊)의 우는 황앵(黃鶯) 교태(嬌態) 겨워 흐느괴야
 나모 새 즈즈지어 수음(樹陰)이 얼린 적의
 백 척(百尺) 난간(欄干)의 긴 조으름 내어 퍼니
 수면(水面) 양풍(涼風)이야 그칠 줄 모르는가
 즈서리 빠진 후의 산 빛치 금슈로다
 황운(黃雲)은 또 엇지 만경(萬頃)의 편거지요
 어적(漁笛)도 흥을 계워 들릴 썬라 브닌다
 초목(草木) 다 진 후의 강산(江山)이 미몰커늘
 조물(造物)리 현스하야 빙설(氷雪)노 꾸며 내니
 경궁요대(瓊宮瑤臺)*와 옥해은산(玉海銀山)*이 안저(眼底)의 버러세라
 건곤(乾坤)도 가음열샤* 간 디마다 경이로다
 인간(人間)을 썬나와도 내 몸이 겨를 업다
 니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드르려코
 바람도 혀려 하고 들도 마즈려코
 봄으란 언제 좁고 고기랑 언제 낙고
 시비(柴扉)란 뉘 다드며 딴 곳츠란 뉘 쓸려뇨
 아침이 낮브거니 나조히라 슬흘소냐
 오늘리 부족(不足)거니 내일(來日)리라 유여(有餘)하리
 이 뉘히 안자 보고 저 뉘히 거러 보니
 번로(煩勞)흔 막음의 버릴 일리 아조 업다
 썬 스이 업거든 길히나 전하리야
 다만 흥 청려장(靑藜杖)* 다 뉘되여 가노미라
 술리 닉어거니 벗지라 업슬소냐
 불늑며 툃이며 혀이며 이야며
 온가짓 소리로 취흥(醉興)을 비야거니
 근심이 이시며 시름이라 브터시랴
 누으락 안즈락 구브락 썬츠락

수많은 바위와 골짜기를 제 집으로 삼아 두고
 나기도 하고 들기도 하며 아양도 떠는구나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먼 하늘에 떠다니니
 광야로 건너가고
 석양과 섞이여 가랑비를 뿌리는구나
 가마를 재촉해 타고 소나무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던 때에 푸른 버들에서 우는 피꼬리 교태를 부리는구나
 나무와 역새가 녹음을 이룬 때에
 긴 난간에서 긴 졸음을 내어 퍼니
 수면의 선선한 바람이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된서리 빠진 후의 산빛이 수놓은 비단같구나
 누렇게 익은 곡식은 또 어찌 넓은 들에 퍼져있는가
 고기잡이 피리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분다
 초목이 다 진 후에 강산이 묻혔거늘
 조물주가 야단스러워 빙설로 꾸며내니
 경궁요대와 옥해은산이 눈 아래 펼쳐있구나
 세상이 풍성하여 가는 곳마다 경이롭다
 인간 세상을 떠나와도 내 몸은 한가로울 겨를이 없다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쏘이려 하고 달도 맞으려 하고
 밤은 언제 좁고 고기는 언제 낚고
 사립문은 누가 닫으며 떨어진 꽃은 누가 쓸겠는가
 아침이 바쁘데 저녁이라고 싫겠느냐
 오늘이 부족한데 내일이라고 여유로우랴
 이 산에 앉아보고 저 산에 걸어보니
 번거로운 마음이지만 버릴 것이 아예 없다
 썬 새가 없는데 길을 전하겠느냐
 다만 청려장 하나가 다 무디어 가는구나
 술이 익었는데 벗이 없겠느냐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타고 썬고, 흔들고
 온갖 소리로 취흥을 재촉하니
 근심이 있고 시름이 붙었겠느냐
 누웠다가 앉았다가, 구부렸다 젖혔다가

을프락 푸름 허락 노혜로 노거니
 천지(天地)도 넓고 넓고 일월(日月)도 한가하다
 희황(羲皇)*을 모을너니 니적이야* 괴로괴야
 신선(神仙)이 었더턴지 이 몸이야 괴로고야
 강산풍월(江山風月) 거느리고 내 백 년(百年)을 다 누리면
 악양루(岳陽樓) 상(上)의 이태백(李太白)이 사라오다
 호탕 정회(浩蕩情懷)야 이에서 더흐소나
 이 몸이 이렇굽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시를 읊었다가 휘파람을 불었다가 마음놓고 노니
 천지도 넓디넓고 세월도 한가하다
 희황을 모르고 지냈는데 이때가 그것이로구나
 신선이 어떠하던지 이 몸이 그것이로구나
 강산과 풍월을 거느리고 내 평생을 다 누리면
 악양루 위의 이태백이 살아온다 해도
 넓고 끝없는 정다운 회포가 이보다 더할 것이냐
 이 몸이 이리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이다

•주제 : 자연 속에서의 풍류와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특징 :

- ① 다양한 수사법과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연의 경치를 실감 나게 묘사
- ②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내용을 전개함.
- ③ 유교적 충의의 내용도 담고 있음.

•구성 :

서 사: 제월봉의 형세와 면앙정의 모습
 본사 1: 면앙정의 근경과 원경
 본사 2: 면앙정의 계절 변화에 따른 풍경
 본사 3: 자연에서 즐기는 풍류적 삶
 결사: 풍류 생활의 만족감과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무변대야: 끝없이 넓은 들판.

*너르바회: 넓고 평평한 바위.

*사정: 시냇가의 모래톱.

*어즈러온: 어지러운.

*젓치 아녀: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산람: 산속에 생기는 아지랑이 같은 기운.

*경궁요대: 옥으로 장식한 궁전과 누대(樓臺)라는 뜻으로, 호화로운 궁전을 이르는 말. 곧 눈에 덮인 아름다운 자연.

*옥해은산: 눈 덮인 들판과 산

25. 이신의, 「사우가」

바위에 섰는 솔이 늙연(凜然)한 줄 반가운데
풍상(風霜)을 격거도 여외는 줄 전혀업다
얻디타 봄비출 가져 고티줄 모르느니

제1수: 소나무의 늙름한 위엄과 불변성

동리(東籬)의 심은 국화(菊花) 귀(貴)한 줄를 늙아느니
춘광(春光)을 번페 하고 엄상(嚴霜)이 혼자뛰니
어즈버 청고한 내버디 다만넌가 하노라

제2수: 국화의 맑고 고절함

곶이 무한(無限)호되 매화(梅花)를 심근 뜻은
눈속에 곶이뛰여 흰비딘줄 귀(貴)호도다
하물며 그옥한 향기(香氣)를 아니 귀(貴)코 어이리

제3수: 매화의 강인함과 아름다운 향기에 대한 예찬

백설(白雪)이 즈즌날에 대를보려 창(窓)을여니
온갓곳 간디업고 대숲히 푸르러세라.
엇디흔 청풍(淸風)을 반겨 흔덕흔덕 하느니.

제4수: 눈에도 굴하지 않는 푸른 대나무의 절개를 예찬

바위에 서 있는 소나무가 위엄이 있고 의젓한 것이 매우 반갑구나.
바람과 서리를 무수히 겪어도 여위는 일이 전혀 없이 깨끗하구나.
어찌하여 봄비를 가져 고칠 줄을 모르는가?

동쪽 울타리에 심은 국화 귀한 줄을 누가 아느냐.
봄별을 마다하고 심한 서리에도 혼자서 피니
어즈버 맑고 고절한 내 벗이 다만 너뿐인가 하노라.

곶이 무한히 많은데 매화를 심은 뜻은
눈 속에 곶이 피어 한 빛인 것이 귀하도다.
하물며 그옥한 향기는 귀하지 않고 어찌하리.

하얀 눈이 잦은 날에 대를 보려고 창문을 열었더니
온갓 꽃은 간데없고 대숲이 푸르구나.
어떠한 맑은 바람을 반겨 흔들흔들 하느냐

26. 맹사성, 「강호사시가」

江湖(강호)에 봄이 드니 미친 興(흥)이 절로 난다
濁醪溪邊(탁료계변)에 錦鱗魚(금린어) | 안주로다
이 몸이 閑暇(한가)히움도 亦君恩(역군은)이샀다

江湖(강호)에 녀름이 드니 草堂(초당)에 일이 업다
有信(유신)은 江波(강파)는 보내느니 바람이다
이 몸이 서늘히움도 亦君恩(역군은)이샀다

江湖(강호)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슬져 잇다
小艇(소정)에 그물 시러 흘리 띄여 더더 두고
이 몸이 消日(소일)히움도 亦君恩(역군은)이샀다

江湖(강호)에 겨울이 드니 눈 기피 자히 남다
샷갓 빗기 썩고 누역으로 오슬 삼아
이 몸이 칩지 아니히움도 亦君恩(역군은)이샀다

강호에 봄이 찾아드니 참을 수 없는 흥겨움이 솟구친다.
탁주를 마시며 노는 시냇가에 금빛 비늘의 물고기가 안주로구나.
이 몸이 이렇듯 한가롭게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이시도다.

강호에 여름이 닥치니 초당에 있는 늙은 몸은 할 일이 별로 없다.
어김없는 강 물결은 보내는 것이 시원한 강바람이다.
이 몸이 이렇듯 서늘하게 보내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이시다.

강호에 가을이 찾아드니 물고기마다 살이 올랐다.
작은 배에 그물을 신고서, 물결 따라 흘러가게 배를 띄워 버려 두니,
이 몸이 이렇듯 한가롭게 고기잡이로 세월을 보내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이시도다.

강호에 겨울이 닥치니 쌓인 눈의 깊이가 한 자가 넘는구나.
샷갓을 비스듬히 쓰고 도롱이를 둘러 입어 겉옷 삼아도
이 몸이 이렇게 추위를 모르고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이시도다.

28. 안민영, 「매화사」

매영(梅影)이 부딪친 창에 옥인금어(玉人金馭) 비겨신저
이삼(二三) 백발용은 거문고와 노래로다.
이윽고 잔 들어 권하랴 저 달이 또한 오르더라

어리고 성긴 가지(柯枝) 너를 밋지 안얏더니,
눈 기약(期約) 능(能)히 지켜 두세 송이 푸엿구나.
촉(燭) 잡고 갖가이 사랑할 제 암향 부동(暗香浮動)하더라.

빙자옥질(冰姿玉質)이여 눈 속에 네로구나.
가만이 향기(香氣) 노아 황혼월(黃昏月)을 기약(期約)하니
아마도 아치고절(雅致高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눈으로 기약(期約)더니 네 과연(果然) 피엿구나
황혼(黃昏)에 달이 오니 그림자도 성기거다
청향(淸香)이 잔(盞)에 떠 이시니 취(醉)코 놀려 하노라

해 지고 돋는 달이 너와 기약(期約) 두엇던가
합리(閤裡)에 자든 곳이 향기(香氣) 놓아 맡는고야
내 엇디 매월(梅月)이 벗 되는 줄 몰랐던가 하노라

봄이 눈을 모라 산창(山窓)에 부딪치니
찬 기운(氣運) 시여 드러 즈는 매화(梅花)를 침노(侵勞)허니
아무리 어루러허인들 봄 뜻이야 아슬소나

저 건너 나부산 눈속에 검어 우뚝 울퉁불퉁 광대 등걸아
네 무삼 힘으로 가지 돌려 곳조차 저리 피웠는다
아무리 석은 배 반만 남았을망정 봄뜻을 어이하리오

동각(東閣)에 숨은 꽃이 철쪽인가 두견화인가
건곤이 눈이어늘 제 엇지 감히 피리
알괘라 백설양춘(白雪陽春)이 매화 밖에 뉘 이시리

매화 그림자 비친 창에 가야금을 타는 미인이 비스듬히 앉아 있는데,
두어 명의 노인은 거문고 뜯으며 노래하도다.
이윽고 술잔을 들어 서로 권할 때 달아 또한 솟아오르더라.

연약하고 영성한 가지이기에 어찌 꽃을 피울까 하고 믿지 아니하였더니,
눈 올 때 피겠다고 하던 약속을 능히 지켜 두세 송이가 피었구나.
촛불 잡고 너를 가까이 감상할 때 그윽한 향기는 방안을 떠도는구나

얼음같이 맑고 깨끗한 모습과 구슬처럼 아름다운 바탕이여, 눈 속에 피어난 (바로) 너로구나.
가만히 향기를 풍기며 저녁에 뜨는 달을 기다리니,
아마도 아담한 풍치와 높은 절개를 보여 주는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눈 올 때쯤 피우겠다고 너 과연 피었구나.
황혼에 달이 뜨니 그림자도 듬성하구나.
매화, 너의 맑은 향이 술잔에 어리었으니 취해 놀고자 하노라.

황혼에 뜬 달은 미리 너와 만날 기약을 하였더냐?
화분 속에 잠든 꽃이 향기를 풍기며 맞이하는구나.
내 어찌 달과 매화가 벗인 줄 몰랐던고 하노라.

바람이 눈을 몰아 창문에 부딪치니
찬 기운이 방으로 새어 들어와 잠들어 있는 매화를 건드린다.
아무리 열게 하려 한들 매화의 봄뜻을 빼앗을 수가 있을 것인가?

저 건너 나부산 눈 속에 거무튀튀 울퉁불퉁 광대등걸아,
너는 무슨 힘으로 가지를 돌려서 꽃조차 저처럼 피웠는가?
아무리 썩은 배가 밤만 남았을망정 봄 기운을 어이하리오.

동쪽 누각에 숨은 꽃이 철쪽꽃인가 진달래꽃인가?
온 세상이 눈에 덮여 있는데 어찌 감히 필 것인가?
알겠구나, 백설 속에서도 봄인 양하는 것은 매화밖에 또 누가 있으랴.